30일 Market Index
코스피 2535.29 (+15.48)
코스닥 831.68 (+9.24)
금리(국고채 3년) 3.560 (+0.006)
환율(원·달러) 1290.00 (+0.40)

metro® 경제

대통령실 정책추진 속도 위해 '정책실장직' 신설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출산율 최저인데 키즈산업은 날개

'텐 포켓' 트렌드

올해 3분기 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아이들 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키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올해 7월 기준 1만912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73명(6.7%)이나 감소했다. 국내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2022년 0.78명이었던 합계출산율도 올 2분기 0.7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적어도 2027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출생아 수 1.9만명
1981년 이후 2만명 밑 처음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

키즈산업 40조원대 급성장
부모·이모 등 공동육아 트렌드
프리미엄 키즈제품 수요 늘어

이러한 가운데, 키즈산업은 성장중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키즈산업의 규모는 2002년 8조원, 2007년 19조원, 2012년 27조원, 2020년 40조원대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1자녀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모와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 등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갑을 열기를 마다하지 않는 공동육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프리미엄 키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혈연을 넘어 부모의 지인까지 포함된 이른바 '텐 포켓(Ten pocket)'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베이비 푸드 시장에서는 해외직구가 특히 강세다. G마켓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입분유 거래액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분유를 구매하는 수요도 크게 상승해 각각 전년 대비 2021년에 104%, 2022년에 26%, 2023년(1~9월)에 39% 늘었다. 이에 G마켓과 옥션은 수입분유 당일출고 서비스 '맘마배송'을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 한 백화점에 고가 프리미엄 유아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올해 분유, 기저귀, 유·아동복 등 육아용품 물가 상승세가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베이비·키즈 라인 럭셔리 패션은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분유, 유아용 학습교재, 유·아동복, 기저귀 등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 및 서비스 중 6개 품목의 올해 10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인 3.7%를 넘었다. 특히 유·아동복 물가는 작년 동기간보다 12.1%, 기저귀 가격은 9.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 시장 규모는 2020년 9120억원에서 2022년 1조2016억원으로 약 32%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패션 시장이 13% 성장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현대백화점 아동 부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모두 20%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 업계는 프리미엄 유아동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키즈 브랜드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저출산 현상에 따른 '적게 낳은 만큼 귀하게 키운다'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프리미엄 키즈 관련 제품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美 금리인하 가능성… 금값 역대 최고가 눈앞

美연준 위원들 '비둘기파적' 메시지
국제 금 선물값 온스당 2047.1달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금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적 발언이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을 보태면서,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1월29일(현지시간) 온스당 2047.1달러를 기록해 6개월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지난 2020년 10월 기록한 역대 최고 가격인 온스 당 2074.88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온스당 1937.70달러였던 뉴욕선물시장 금 가격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온스당 2047.1달러까지 오르며 거래일 평균 0.32%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빠르면 내년 초 기준금리가 하향될 수 있다는 기대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외신은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를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금리 인하·유동성 증가를 통해 시중 통화량 증가를 꾀하는 정책 방향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러 이사는 연준 내에서 손꼽히는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 금리 인상·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정책 방향성) 위원이다. '매파적' 위원이 '비둘기파적'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그 의의가 크다는 외신들의 설명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월러 이사는 "현재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경기 침체 여부와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하락이 몇 달 동안 이어지면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 있다"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러 이사가 내놓은 의외의 비둘기파적 메시지에 금 가격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루에만 27.60달러 올라 1.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달러 당 1295원을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0.54%(7원) 내렸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금리 또 '동결'… 내년 성장률 2.1%로 낮춰

한은, 연 3.5% 7연속 유지
경기회복 여부 불확실 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다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이후 일곱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관련기사 3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는 당초 예상보다 높지만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한은은 늘 정책목표인 물가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소비자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3.8% 수준으로 높아져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 추이 등을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실 등 금융불안이 더 심화될 수 있어 동결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1.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수출이 8~9월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졌다"며 "최근 한달간 IT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예측한 대로 1.4%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2.4%에서 5월 2.3%, 8월 2.2%로 낮췄다. 올해 들어 총 0.3%p 낮춘 셈이다.

이 총재는 "수출·설비투자가 회복하며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겠지만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이 약화돼 지난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성장경로상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향방, 지정학적 갈등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교체설 제기된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 뉴시스

▲ 민주 "자승 입적 애도…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이어받아야"

▲ 결혼 증여세 3억 공제·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 이준석 "인요한, 셀럽 역할은 성공… 정치 변화는 실패"

▲ 방문규 "많은 표 차이 예측 못했다…오일머니 공세 높다 실감" /사진 뉴시스

▲ 유인태 "병립형 회귀는 탐욕, 노무현 여러 번 졌다"… 이재명 직격